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2006.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2006. 4

김영윤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재진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주요내용	2
1. 2005년 내각 사업 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	2
2.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예산 편성	5
3. 과학기술 중시정책 결정 채택	7
III. 분석 및 평가	11
1. 전반적 사업 평가	11
2. 2005년 결산	14
3. 2006년 예산 수입 및 지출계획의 특징	18
4. 과학기술 중시정책	22
IV. 정책 전망	26
1.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 양양	26
2. 곡물 증산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과 인민경제 활성화	26
3. 대외 경제협력 강화 및 개방조치의 가능성	27
4. 대내 경제관리의 철저와 내각의 역할 강화	27
5. 과학기술 중시정책 지속·강조	29
<부록>	30

표 목 차

<표 1> 북한의 예산총액 증가율(북한 발표)	14
<표 2> 2005년 국가 예산 수입 및 결산 증가율 및 항목별 구성비	16
<표 3>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17
<표 4> 2006년 북한 예산 수입 및 예산 지출 계획의 항목별 구성비	18
<표 5> 최근 북한의 예산수입 항목별 증가율 내역	21

I. 문제제기

- 북한은 2006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를 만수대 의 사당에서 개최했음.
 -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형식적이지만 정책의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관임.

-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상 상반기 3월과 4월 사이에 열려 전년도 예산 결산, 당해연도 예산 승인, 그 외 경제관련 계획과 주요 법안의 심의,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직책의 임면을 처리함.

-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토의되었음.
 - 2005년 내각의 사업 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
 - 200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06년 국가예산 편성
 - 과학기술 중시정책 결정 채택

- 본 보고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1. 2005년 내각 사업 평가와 2006년 사업계획

가. 2005년 내각 사업 평가

- 박봉주 내각 총리는 2005년은 조선노동당 창건 60돌과 광복 60년이 되는 해로 북한이 알곡생산을 늘리고, 중요 건설대상과 개건현대화를 토대로 전반적 공업생산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 예산 결산과 편성에서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액수의 제시 없이 전년대비 변화비율(%)만 제시
 - 발전량은 111%, 석탄생산은 110%이 늘어났음을 발표
-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하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었음을 발표
 - 화학비료, 농약, 연료, 농기계 부속품들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이 공급되었음을 강조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 방침, 두벌농사 방침, 감자농사혁명 방침, 콩농사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면서 휴보산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선진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든 작물의 소출이 높아졌다고 발표
- 130여개의 주요 건설 대상들과 개건 현대화 대상들이 성과적으로 완공되었다고 발표

-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를 비롯, 20여개의 발전소들이 준공
 - 주요 광산들의 개건,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
 - 현대적인 대안친선유리공장의 건설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양 주철직장과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완공 등
 - 철생산공장과 마그내샤크링카 생산공정이 만들어져 금속공업과 내화물 공업발전에 기여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가성소다 염화비닐 생산공정들이 개건되고 평화방직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과 같은 주요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공정이 최신 설비로 장비
 - 기초식품공장, 통우유공장, 정제소금공장의 신규 건설, 인민소비품 생산 토대 강화
 - 백마-철산 물길 건설 및 대규모 토지정리와 베개도 간석지 공사, 광포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 홍주 닭공장, 복창오리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 건설
 - 영남배수리 공장 2호도크 건설 및 남포항을 비롯한 주요무역항 개건확장공사 진행
 - 콘크리트 침목, 철길부속품 생산기지 건설
- 과학연구사업과 선진 과학기술 도입사업 추진
-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 과제 수행
- 교육 및 문화건설 분야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
- 김책공업대학의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의 건설
 - 치료예방기관들과 의약품 생산기지
 - 모란봉 극장과 삼지연지구 학생소년궁전, 체육촌을 비롯 문화체육

시설들의 개선 및 건설

- 아리랑 공연

나. 2006년 사업계획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명분 하에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 전개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킴.
 -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
 - 석탄과 금속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전반적 인민경제의 개선 현대화와 생산의 활성화
- 과학기술중시 노선관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봉사 사업을 개선하고 국토건설과 도시경영사업을 강화
- 대외적으로는 수출기지를 꾸리고, 수출품의 품종과 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대외시장들을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 해나가는 한편,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외국 기업들과의 합영·합작을 실현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의 원칙을 구현
-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

2.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예산 편성

가.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증가율

- 2005년 국가예산 수입은 계획보다 100.8%로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2004년에 비해 16.1% 증가한 금액임.
 - 이 중 국가기업 이득금 수입은 지난해의 114.2%,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은 124.3%, 사회보험료 수입은 105.7%, 기타 수입은 100.3%로 증가했음.
- 2005년 지방예산 수입은 114.2%로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 2005년 국가예산수입이 증가되어 국방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금 수요를 원만히 보장했으며,
 - 국가예산 지출도 104.4%로 초과 집행되었음.

나. 국가예산 지출의 구성비

- 2005년 국가예산은
 - 방위비 부문에 15.9%
 - 인민경제부문에 41.3% 지출되었음.
- 인민경제부문 중 농업부문의 지출이 2004년의 132.5%로 증가되어 농업부문이 인민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역량이 집중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전력과 석탄생산 및 금속공장의 설비보수와 개건 현대화, 철도의 기술장비 수준 제고, 채취공업, 기계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위해 예산을 지출
- 또한 교육, 문화, 보건, 체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지출되었으며, 수많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생산하는 데 지출
- 2006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2005년 대비 7.1%를 증가시키는 한편, 이의 78.1%를 중앙예산에서, 21.9%를 지방예산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6년 국가예산 수입의 부문별 구성은 밝히지 않는 대신, 2005년 대비 증가율만 제시하고 있음.
 - 국가기업 이득금: 107.2%
 - 협동단체 이득금: 123.2%
 -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101.8%,
 - 부동산사용료: 112%,
 - 사회보험료: 241%
 -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101.7%,
 - 기타수입: 100.9% 등
-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구성에는 유일하게 국방비 부문의 지출만을 제시,
 - 국방비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총액의 15.9%를 지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외 인민경제부문에서의 지출에 대해서는 2005년 대비 증가율만 제

시하고 있음.

- 농업부문: 112.2%,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 109.6%,
- 과학기술발전 사업비 지출: 103.1%,
- 사회적 시책: 103% 증가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기업소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개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원만히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실시,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기업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전략을 세우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을 조직 전개해 나가도록 하며
-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에 주목, 경영계산체계를 확립하여 계산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 재정검열통제를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 것을 당의 방침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

○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통제와 재정규율을 강화할 것임을 제시

3. 과학기술 중시정책 결정 채택

○ 노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대의원이 세 번째 의제 “과학기술

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를 보고하고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채택

- 과학기술증시를 사상증시와 총대증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동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존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시대의 혁명발전 요구에 맞게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립
 - 현 단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 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차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2년까지의 과학기술전략도 마련할 것임을 강조

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인민 경제문제 해결

- 현 단계 과학기술 부문의 과제는
 -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여
 -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절박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요 공업부문의 개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 과학기술 발전이 인민경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핵심 기초기술분야 발전과 관련해서는
 - 국가광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을 발전시켜
 - 프로그램 개발 강국으로 발전시키고
 - 나노재료공업 창설 및 생물공학적 방법의 우량품종을 육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과학발전의 토대를 마련, 첨단과학기술발전 방안과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 과학기술 인재양성, 연구개발,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기지를 창설, 거점화할 계획임.

○ 중요 기술공학 부문 발전계획

- 농업과학분야: 종자혁명, 생태지역별 특성과 두벌 농사에 적합한 우량 알곡작물 품종 육종도입, 농업의 과학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 에너지 분야: 연료 및 동력자원의 대대적 개발, 현 발전소의 기술개선, 풍력과 생물질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관리의 과학화 실현
- 화학공업 분야: 대규모 비료공업 창설, 원유탐사와 가공기술 발전
- 지하자원 개발: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석재 등 지하자원을 현대적 기술로 채굴하고 가공

○ 2012년까지의 전망목표: 전망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비약하며
- 인민경제는 과학기술적 토대위에서 정보산업시대로 이행된다고 강조

나. 과학기술자 육성 및 과학분야 교류협력

○ 과학기술자 육성정책으로서

- 과학기술자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 발양, 결사관철 정신, 혁명적 투쟁기풍으로 추진
-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언권과 권위 부여

- 기초교육과 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로 과학자 기술자 양적 증대

- 다른 나라로부터 과학기술 수입 및 교류·협조 강화
 -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이라면 어느 나라의 것이든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을 강조

- 국가과학원에 내각의 기술참모부로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조직지도 사업과 추진사업에서 책임 부여

-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과학기술사업비 몫을 대폭 늘이도록 강조

Ⅲ. 분석 및 평가

1. 전반적 사업 평가

가. 최고인민회의 기능의 형식화

- 최고인민회의의 중요성이 저하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됨.
 - 2001년부터 최고인민회의가 하루만에 끝나고 의안도 내각의 사업 보고, 예결산 확정 등 필수적이며 의례적인 것에 국한
 -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예결산 및 기타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작년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 당창건 60돌, 조국해방 60돌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금년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 국가 예·결산 계획 및 집행에 대한 항목별 액수와 총액에 대한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국가의 재정규모와 재정지출 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함.

- 박봉주 총리가 제시한 북한 내각의 올해 주요 사업은 국방공업 발전,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가, 과학기술중시 노선 관철의 근본적 전환, 대외경제 협조사업 활발히 전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임.

나. 경제적 성과 및 안정화에 대한 과대 평가

-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해 경제사업에서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음.
 - “지난 해 사회주의 경제건설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 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발전량은 11%, 석탄생산은 110%로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주요 지표들의 생산이 장성한 것은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라는 언급

-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서의 알곡생산 증대, 영농물자 공급의 확대, 130여개의 주요 건설 및 개선 현대화 대상들의 완공을 비롯,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를 비롯 20여 개 발전소의 준공 성과를 제시

다. 새로운 개혁·개방조치 미언급 및 대외경제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남부 개방지역의 방문, 장성택 제1부부장의 답습 방문 등의 움직임과 관련, 개혁·개방 관련 새로운 조치가 예상되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이는 북한의 획기적 개방조치 제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암시하는 한편,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미국의 “비법적인 금융제재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의 경제봉쇄책

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한 조건에서도 지난 해 경제발전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였음을 언급, 대외경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대외경제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중 경제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대적인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새 세기 조·중 친선의 상징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양주철직장과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이 완공”되었음을 언급

라. 사상교육 강화

- 지난 해 경제·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이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을 계승 완성해 나가는 북한 노동당의 정치실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
 - 특히, 아리랑 공연 등 대집단체조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2005년 결산

가. 재정 적자 시현

<표 1> 북한의 예산총액 증가율(북한 발표)

년도	예산총액 (북한원)	예산 증가율		결산(계획대비 증가율)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2	221.7억	N.A.		100.9%	99.8%
2003	3,234.5억	113.6%	114.4%	100.9%	98.2%
2004	3,885.9억	105.7%	108.6%	N.A.	N.A.
2005	3,917.0억*	116.1%	N.A.	100.8%* (3,917.0억)	104.4%** (4,056.9억)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결산 발표 내용. 2004년은 북한 발표 수치

* 2004년 예산총액에 결산수입 증가분(100.8%)을 반영 산출한 수치

** 2004년 예산총액에 결산 지출 104.4%를 반영한 수치

- 2004년 북한이 발표한 예산규모 3,885.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05년 예산 수입은 3,917억원으로 계획 대비 0.8% 초과한 금액임.
 - 국가예산수입 측면에서 볼 때 이는 2004년에 비해 16.1% 증가된 것으로 발표
- 반면, 실제 지출된 예산은 2004년 계획 대비 4.4%가 초과한 것으로 금액으로 따져 4,056.9억원임.
 - 이는 농업부문의 지출이 2004년에 비해 32.5%나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05년 재정은 139.9억원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적자는 예산 수입에 대비한 지출 초과에 기인한 것으로
 - 양곡수매 등 국가보조금 지급 사유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재정 적자를 남한의 대북 지원과 연계시킬 경우, 남한으로부터의 곡물 및 비료지원이 없었을 경우, 북한 재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평가됨.
- 쌀 50만 톤의 대북 지원은 220억원의 북한 재정 수입 증가를 의미 (44원/kg 계산)

나. 지방예산의 재정적 기여

- 국가예산 수입에 있어 2004년보다 계획대비 16.1%나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협동단체 이득금이 24.2%나 증가했음을 볼 때, 농촌부문의 생산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방이 중앙보다 계획대비 더 많이 수납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 수치에서도 중앙의 8% 증가보다 지방의 14.2% 증가가 실제 이를 증명하고 있음.
 - 결국 지방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예산 수입은 실질적으로 20%이상 증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표 2> 2005년 국가 예산 수입 및 결산 증가율 및 항목별 구성비

예산(계획)				결산(지출)			
증가율 (계획대비)		2004년 대비증가(%)	항목별 증가율(%)	증가율 (2004년대비)		2004년 대비증가(%)	항목별 구성비(%)
중앙 (%)	지방 (%)	16.1	국가기업이득 금: 14.2, 협동단체이득 금 24.2 사회보험수입: 5.7, 기타 수입: 0.3	중앙 (%)	지방 (%)	108	인민경제비: 41.3 인민적시책비: N.A. 방위비: 15.9 관리비: N.A.
8	14.2			4.4	N.A.		

자료: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 작성

-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
 - 북한 스스로도 “지난 해 경제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국가예산 수입을 늘린 결과 국방부분과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했다”고 언급

다. 예산 지출 부문의 안정성

- 2005년 지출 항목과 관련, 군사비에 대한 예산 지출은 15%대로서 과거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조는 금년 200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15.9%).
- 인민경제비는 2005년 전체 예산 지출 총액의 41.3%로서 2000년 이후 인민경제비의 일정부분을 인민적 시책비로 전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북한의 예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국가관리비
2000	40.1	38.2	14.3	N.A.
2001	42.3	38.1	14.4	N.A.
2002	N.A.	N.A.	14.9	N.A.
2003	N.A.	40.5	15.7	N.A.
2004	41.3	40.8	15.6	N.A.(2.3)*
2005	41.3	N.A.	15.9	N.A.

자료: 북한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자체 작성

* 2004년 전체 100%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구성비를 차감한 수치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지출은 지난 2000이후 큰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산 지출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국방력을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

○ 2005년 결산 지출금액(4,056.9억원) 중 국가관리비를 2004년과 같은 2.3%로 계상하면 각 부분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민경제부문: 1,675.5억원(41.3%)
- 인민적 시책비: 1,651.2억원(40.5%)
- 군사부문: 645억원(15.9%)
- 국가관리비: 85.2억원(2.3%)

- 2005년 인민경제비 중 농업부문의 지출이 2004년에 비해 32.5%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 경제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으로서의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 그러나 농업부문의 지출이 “거액의 양곡수매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음을 북한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2002년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따른 양곡 수매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양곡 수매를 위한 재정적 지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

3. 2006년 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의 특징

- 2006년 북한 예산의 항목별 수입 및 지출구성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가율 내지 군사비에서만 파악이 가능함.

<표 4> 2006년 북한 예산 수입 및 예산 지출 계획의 항목별 구성비

수입 계획			지출 계획	
2005년 대비 증가율(%)	수입원천별 구성(%)	항목별 증가율(%) (2005년 대비)	2005년 대비 증가율(%) :3.5	지출부문별 증가율(%) (2005년 대비)
7.1	중앙	78.1	항목별 구성 인민경제비: N.A. 인민적시책비: N.A. 군사비: 15.9 관리비: N.A.	농업: 12.2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9.6 과학기술발전사업: 3.1 사회적 시책: 3
	지방	21.9		
		국가기업이득금: 7.2 협동단체이득금: 23.2 고정재산감가상각금: 1.8 부동산사용료: 12 사회보험료: 141 재산판매: 1.7 기타: 0.9		

자료: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 작성

가. 예산수입의 확대

- 2005년 대비 7.1%의 증가율을 계획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예산수입 계획의 항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세분화되어 있는 바, 예산수입원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06년 예산 수입계획에 있어 사회보험료 수입이 141%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보험료의 수입이 2005년 대비 141%나 상승할 것으로 내다 본 것은 개성공단을 통한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유추됨.
 - 2006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인력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수입은 약 157만 달러(북한 원화 기준 2억2,625만원) 정도로 예상¹⁾
- 그 다음으로 협동단체이득금이 수입원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음.
 - * 협동단체이득금: 각종 사회단체, 생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사용료로서 지방예산 수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임.
- 전체적으로 예산수입 원천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국가기업이

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개 기업체당 500명, 35개 기업이 조업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수입

특금 및 협동단체이득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 2006년 예산 지출 계획은 2005년 대비 3.5%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 군사부문이 전체 예산의 15.9%로 200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
 - 인민경제부문에서는 농업부문 12.2%로 가장 큰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나. 예산수입 항목의 다변화

<표 5> 최근 북한의 예산수입 항목별 증가율 내역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사회 보험료	기타			
				토지사용료	고정자산 감가상각금	재산판매	기타
2003	5%	3.3%	6.7%	3.7%	N.A.	N.A.	N.A.
2004	16.5%	N.A.	N.A.	N.A.	N.A.	N.A.	N.A.
2005	13.5%	8.4%	3.0%	N.A.	N.A.	N.A.	N.A.
2006 (계획)	7.2%	23.2%	141%	12%*	1.8%	1.7%	0.9%

자료: 증가율은 각 년도 지난 해 대비한 것임.

* 실제 “부동산사용료”로 언급

- 기업소 및 국가기관 간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 수입원으로 파악,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북한의 항목별 예산수입 계획에서도 토지사용료 수입을 설정, 공표한 바 있으나, 2006년엔 토지 사용료 이외,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될 수 있음.
- 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금의 일부가 국가예산으로 편입되는 비중은 증가율 면에서 그리 높지 않는 것(1.8%)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많은 부분이 기업내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이는 기업 재정의 건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다. 농업 및 기간산업 분야의 예산지출 확대 계획

- 2006년 예산지출도 증가(3.5%)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완만한 예산 확대를 통한 경제개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농업부문의 지출이 2005년 대비 12.2%라는 비교적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바,
 - 이는 올해 북한이 농업분야의 생산 증가에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기간산업분야에서도 지난 해 대비 9.6%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적 토대를 다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반면, 북한이 국가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지출은 3.1%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 분야의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됨.

4. 과학기술 중시정책

- 신년사에서 금년도의 중요한 과제로 인민경제를 개건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간단히 언급한데 그쳤으나,
 - 금번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 세 번째 중요 의제로 과학기술발전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워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을 보고하고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의결한 것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가지 있음.

○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사업비 몫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정작 과학기술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은 농업(12.2%)이나,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9.6%)의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3.1%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을 따름임.

- 이는 북한이 비록 금년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사업비 몫을 대폭 늘려 국가광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 과학발전의 토대를 쌓으며 과학부문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첨단 기술제품의 생산기지들을 건설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북한 주민들이 흔히 지적하는 “마른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음.
- 다른 측면에서는 남한 및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개발에 주력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핵문제와 위폐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 는 속내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과학기술 문제를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²⁾

○ 과학기술 분야의 거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조직문제가 배제되는 데 따른 구색 맞추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함.

-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는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는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더불어 3대 혁명으로서 기술혁명이 강조된 바 있으며, 2000년신년공동사설에

2) 이광홍 (전 북한 대학교 컴퓨터 전공 교수, 2003년 입국) 증언.

서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등으로서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더불어 과학기술 중시를 포함하고 있는 등 이번 결정에 새로운 사실이 없음.

- 최고인민회의에서 단일의제로 다룬 것은 처음있는 일임.

○ 이번 결정에 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표현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임.

- 첫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진과학기술이라면 어느 나라의 것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대목으로 이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한국, 미국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북한의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지만 생산에 접목이 안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책은 분명하지 않음.

○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네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함.

- 대외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현 단계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

- 기존의 “단번도약”의 전략을 강조할 때의 논리처럼 정보기술 발전으로 경제난을 극복한다는 전략으로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의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IT산업은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다는 수세적인 논리를 반복하는 의미

- 북한이 IT 분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단번도약”을 주장하지만

- 사실상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과학화
이며 그것에 필요한 software program을 개발하려는 의미
- 금번 최고인민회의 결정에서 2012년까지의 차기 과학기술발전 5개
년계획과 그 이후 2022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마련도 거론함
으로써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장기비전 제시 의미

IV. 정책 전망

-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금년 회계연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1.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 양양

- 북한은 70년 결성 80돌을 맞는 금년,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생활로 간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을 강조
 -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력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임.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결

2. 곡물 증산을 통한 농업문제 해결과 인민경제 활성화

- 당면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경제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시도
 - 지난해 대비 12.2%를 증액한 예산 편성으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
- 석탄과 금속생산을 늘여 전반적 인민경제의 개진 현대화와 생산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

3. 대외 경제협력 강화 및 개방조치의 가능성

- 당면한 경제난을 해외부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수출기지 확충, 수출품종의 확대, 새로운 대외시장의 개척,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합작의 실현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위폐문제에 따른 금융재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해외동포 상공인들을 비롯, 국적을 불문한 외국 기업들과의 합영·합작사업의 추진 등 대외경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대외개방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예상됨.

4. 대내 경제관리의 철저와 내각의 역할 강화

-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 관리면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등 사회주의적 원칙에 맞는 경제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임.
 - “기업소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여 자금원천을 늘임으로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보다 원만히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 들어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 수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
 - 특히 지방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갈 것임을 예고

- 이를 위해 내각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 또한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내각의 조직 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올해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강력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이 국가예산수입에서 부동산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언급하고 있는 바, 세수증대를 위해 주택이 암거래 되는 등의 관행을 양성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통한 국가 예산수입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에 대해서는 “돈에 의한 경영계산체계”를 수립, ‘기업운영의 화폐화’를 추진
 - 이는 기업회계 및 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총체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하의 국가예산에 대한 감독통제의 강화와 재정규율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5. 과학기술 중시정책 지속·강조

-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를 생산에 직접 접목하는 방향의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을 과학기술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전망목표와 단계별 계획 수립의 세부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 프로그램기술개발
 - 나노재료 공업 창설
 - 농업 우량품종 육종
 -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과학, 기초과학연구, 첨단과학기술발전
 - 종자혁명, 농촌경리의 기계화
 - 풍력과 생물 에너지 개발
 - 대규모 비료공업, 원유탐사 및 가공, 지하자원 채굴, 가공 등
-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해외 동포, 과학자, 기술자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부 록>

「北,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 4.11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2006. 4. 11, 20:00, 중·평방)

조선노동당의 선군혁명 영도따라 전군 전민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일대 번영기를 펼치기 위한 전면적 공세를 벌여나가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는 당·무력기관·정권기관·사회단체·성 중앙기관 일꾼들, 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과 군대, 국가의 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자리잡았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가 있던 후 지난 1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국적 헌신을 발휘하여 조선노동당 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을 선군혁명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선군혁명 위업의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군사적 위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최근 연간에 있어본적이 없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대상들이 개건 현대화되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 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려져 우리 민족 끼리의 이념에 따라 북과 남에서 통일대축전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고 대화와 접촉, 교류가 전례없이 활발해졌으며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이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선군혁명총진군의 거세찬 불길속에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전군, 전민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혁명적 신념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경제 건설노선과 과학 기술 중시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선군의 위력으로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최고인민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중 59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회의가 성립되므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 회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4(2005)년 사업정형과 주체95(2006)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4(200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 데 대하여.

회의에서는 내각총리 박봉주 대의원이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 94(2005)년 사업정형과 주체95(2006)년 과업에 대하여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당 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 경축 대축전들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해였으며 경제문화 건설에서 자랑스런 승리가 이룩된 보람찬 투쟁의 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내각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면서 나라의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고 중요 건설대상들과 개진 현대화 대상들을 완공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전반적 공업생산을 활성화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자랑스런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천만군민의 애국적 노력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사회주의 경제건설분야에서 최근 몇해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발전량은 111%, 석탄생산은 110%로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주요 지표들의 생산이 장성된 것은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아래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영농물자 생산과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화학비료, 농약, 연유, 농기계 부속품들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이 전해에 비하여 훨씬 많이 공급되었으며 농촌에 대한 노력지원사업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면서 흙보산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 지휘하고 여러가지 선진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든 작물의 소출을 높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기념일에 더 큰 노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주요 건설 대상들과 개건 현대화 대상들이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나라의 경제 토대가 일층 강화되었습니다.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를 비롯한 20여 개의 발전소들이 준공되고 주요 광산들의 개건,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나라의 동력 기지와 원료 기지들이 보강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새 세기 조-중 친선의 상징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양주철직장과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현대화 대상들이 완공되었으며 현대적 기계설비들이 개발되고 낡은 공작기계들을 갱신,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기간공업의 자립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서부지구의 풍부한 철광석에 의한 주체적인 철 생산공정과 국내 연료에 의한 마그네샤크링카 생산공정이 꾸려져 금속공업과 내화물 공업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은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2.8비난론연합기업소의 가성소다 염화비닐 생산공정들이 개건되고 평양방직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과 같은 주요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공장이 최신 설비들로 장비되었으며 수많은 기초식품공장, 콩우유공장, 정제소금공장이 새로 건설된 것을 비롯하여 인민소비품 생산토대가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백마-철산 물길의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되고 대규모의 토지정리와 배개도 간석지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었으며, 광포오리공장이 개건현대화 되고 흥주 닭공장, 북창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 축산기지들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영남배수리공장 2호도크 건설공사와 남포항을 비롯한 주요 무역항 개건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콘크리트 침목, 철길부속품 생산기지들이 꾸려지는 등 교통운수부문의 토대가 더욱 개선되었으며 체신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과학연구사업과 선진과학기술 도입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 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법적인 금융제재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의 경제봉쇄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경제발전에서 기초적인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고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인 것은 선군조선의 불굴의 의지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됩니다.

지난해 교육, 문화건설분야에서도 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원종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이 새 세기의 맛이 나게 현대적으로 건설된 것을 비롯하여 각급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내용이 개선되고 치료예방기관들과 의약품 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과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게 되었습니다.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모란봉극장과 삼지연지구에 학생소년궁전, 체육촌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체육시설들이 개진되고 새로 건설되었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1세기의 대걸작품으로 재형상되고 시대의 명작들이 수많은 창작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떨치었습니다.

지난해 경제, 문화건설 분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선군의 기치 높이 주체의 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는 우리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실력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선군혁명의 진두에서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새 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은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는 오늘 우리 앞에는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선군혁명 총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트드결성 80돌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며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드팀없는 신념으로 생활로 간직하고 한몸바쳐 빛내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굳력강화를 최우선시

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갈데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 공세를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올해 내각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석탄과 금속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전반적 인민경제의 개진 현대화와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하여 당의 과학기술중시 노선관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봉사 사업을 개선하고 국토건설과 도시경영사업을 강화할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내각은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개선 강화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릴 것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의 품종과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새로운 대외시장들을 적극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 해 나가는 한편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나라 기업들과의 합영합작도 실현하는 등 대외경제 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제지도일꾼들이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데서 좋은 경험들을 부단히 창조하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 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한편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올해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 큰 힘을 넣어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올해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당의 노선과 정책적 의도에 맞게 경제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완강하게 해나가며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강력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나갈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꾼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당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경제사업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생산자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능동적으로 참신하

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고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지만 당의 필승불패의 선군혁명 영도가 있고 영웅적 인민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믿음직한 토대가 있는한 극복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다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전백승 선군의 기치따라 주체의 조국 땅위에 21세기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떠 세우기 위하여 신심 드높이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4(200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 95(200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내각 부총리 노두철 대의원이 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에 당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국가예산을 원만히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100.8%로 넘쳐 수행되어 국가예산 수입은 그 전해에 비해서 116.1%, 그중 국가기업 이득금 수입은 114.2%,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은 124.3%, 사회보험료 수입은 105.7%, 기타 수입은 100.3%로 장성된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예산 수입은 114.2%로 초과 수행됐으며, 지방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고 보고자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 경제관리,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국가예산 수입을 늘인 결과 국방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지난해 국가예산 지출이 104.4%로 초과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선군정치요구의 맞게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렸으며,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41.3%에 해당하는 자금을 인민경제부문에 지출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이 그 전해보다 132.5%로 늘어나고 거액의 양곡수매 보조금이 지출되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공업 부문들에 많은 자금이 지출되어 전력과 석탄생산이 늘어나고 금속공장들의 설비보수와 개건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철도의 기술장비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채취공업, 기계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이 다그

친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교육, 문화, 보건, 체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지출되어서 교육과 보건시설들이 정비 보강되고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으며 국제체육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선군혁명 영도를 철저히 받들어어나가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올해 우리 앞에는 선군혁명 총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예산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선군혁명 총진군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지난해 보다 107.1%로 늘이며 그 가운데서 78.1%는 중앙예산에서, 21.9%는 지방예산에서 보장할 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 이득금 수입은 지난해 보다 107.2%로 늘어 편성하였으며 협동단체 이득금 수입은 123.2%,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수입은 101.8%,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112%, 사회보험료 수입은 24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은 101.7%, 기타 수입은 100.9%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지출총액은 지난해에 비하여 103.5%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쏟으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이며 선군혁명의 전위부대인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 전반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고 우리 인민들이 이미 마련해 놓은 경제 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12.2%로 늘임으로써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9.6%로 늘이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 사업비 지출을 103.1%로 늘일 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전반적 무료의무 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 우대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시책들에 지난해에 비하여 103%의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국가에서는 기업소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여 자금원천을 늘임으로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보다 원만히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사업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 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지도일꾼들 앞에 나선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모든 부문의 경제지도일꾼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올해의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 당의 지방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여 국가에 들여놓도록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실사사업을 짜고들어 부동산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용료를 제정 적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재정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꾼들이 과학적인 혁명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을 조

직 전개해 나가도록 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에 깊은 주목을 돌려 돈에 의한 경영계산체계를 바로 세우고 계산의 과학화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일생산 및 재정총화와 재정검열통제를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데서 재정은행 일꾼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은행부문 일꾼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주부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국가예산 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예산 자금을 예산에 규정된대로 지출하고 효과있게 이용되게 하며 감독통제와 재정규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선군혁명 영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립적인 재정토대가 있는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 나갑시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생략)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 보고와 주체94(200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대의원이 셋째 의정, 과학기술 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과학혁명, 기술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믿음직하게 담보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식화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최근 연간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이 유례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담보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없이 발전해온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영도아래 이룩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모든 성과들은 과학기술중시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며 주체과학의 휘황한 전망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이미 마련된 과학기술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하여 제힘으로 짧은 역사적 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며 강성대국 건설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대비약을 일으켜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 계획들을 바로 세워 철저히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주체 101(2012)년까지 다음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의 지휘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주체 111(2022)년까지의 과학기술발전 전략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 시기 과학기술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면 식량문제, 에네르기문제를 비롯한 절박한 경제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풀고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요 공업부문의 개건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는 것입니다.

핵심 기초기술분야에서는 국가광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프로그램 개발 강국으로 발전시키며 나노재료공업을 창설하고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우량품종들을 육종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과학발전의 토대를 쌓으며 기초과학연구에도 힘을 넣어 첨단과학

기술발전에 절실한 원리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이 집중된 지구들에 인재양성, 연구개발, 생산이 밀접히 결합된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를 창설하는데 큰 힘을 넣어 나라의 경제를 점차 첨단산업 위주로 구조로 갱신해 나가기 위한 거점을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업과학분야에서는 종자혁명을 다그쳐 생태지역별 특성과 두벌 농사에 적합한 우량한 알곡작물 품종들을 육종 도입하고 농업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에너지 기술분야에서는 나라의 연료, 동력자원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현존 발전소들의 기술개선을 다그치며 풍력과 생물질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적극 연구 개발하면서 앞선 에너지 전략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에너지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료에 의한 제철법들을 공업화하고 대규모 비료공업을 창설하며 원유탐사와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화학공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한편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석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현대적 기술로 채굴하고 가공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어 이 부문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도록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요구에 맞게 뒤떨어진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현대적 기술로 개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기술경제적 지표들을 앞선 수준에 도달시켜야 합니다.

뜻깊은 태양절 100돌까지의 다음기 과학기술발전 전망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우리의 과학기술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며 인민경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전선의 기수이며 전초병인 과학자 기술자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당의 과학기술 전사답게 당과 조국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새겨안고 자기의 지혜와 애국의 열정을 다바쳐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해 나가며

당의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인민군대에서 처럼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적 투쟁기풍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보배로 존중하고 내세우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며 그들의 생산과 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발언권과 사업권위를 높여 주고 사업조건을 원만하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기초교육과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의 내용과 질,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높은 자질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우수한 대상들을 과학연구기관들에 우선 배치하여 과학자 기술자 대열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자체로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주체적 입장에서 잘 배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연구기관들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진과학기술이라면 어느 나라의 것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대담하고 폭넓게 진행하며 다른 나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조직하고 해외동포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 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은 자기의 과학기술 참모부서를 잘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과학기술 연구사업과 경제지도 관리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조직 진행하며, 과학연구화 도입사업을 연구기관과 생산단위들이 밀접한 연계밑에 철저히 집행해 나가는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과학자기술자들과의 활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 강화하며, 설계연구기관들의 기술역량과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주고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합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경제사업과 과

학기술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사업체계를 세워 나가며 국가과학원은 내각의 과학 기술 참모부로서 당의 과학기술 정책에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작전을 바로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 지도사업과 장악 추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과학연구사업 조건을 원만하게 보장하는 것은 현 시기 과학기술 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사업비 몫을 대폭 늘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지구에 인재양성, 연구개발, 생산이 밀접히 결합된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를 포함시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대담하게 투자하여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며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힘과 지혜를 바쳐야할 전인민적인 사업이라는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누구나 과학과 기술을 배우며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추세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으나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이 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있으며 선군의 기치 밑에 튼튼히 다져놓은 과학기술 발전의 귀중한 밑천이 있는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의 불멸의 선군영도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경제강국, 과학기술 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생략)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과학기술 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온 나라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는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상정된 의안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회의는 당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 높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수호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억 세계 싸워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을 토의하였으며 주체94(2005)년 국가예산 집행정형을 결산하고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을 심의 채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지난해 내각사업 정형을 총화하고 올해 과업에 대하여 토의 결정한 것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조직 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은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과학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정보산업시대의 원리에 맞게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된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워 우리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영도 따라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대의원 동지들과 회의 참가자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결사옹위하며 당의 선군혁명영도 업적을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견결히 투쟁하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 결정한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4차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4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 으
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
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6-06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대), 팩스 : 901-2544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 2285-0936~7
인쇄일 2006년 4월 일
발행일 2006년 4월 일
